

수륙재 문화재 등재, 포교원도 힘보태



서울 진관사 국행수륙재에서 헌다하는 주지 계호 스님



동해 삼화사에서 펼쳐진 국행수륙재 장면

진관사·삼화사 설행 및 학술대회 개최

수륙재의 중요무형문화재 등재를 앞두고 서울 진관사와 동해 삼화사가 시연회와 학술세미나를 잇따라 연 가운데 종단과 지자체의 지원 약속 등이 이어지고 있다.

진관사 수륙재, 박원순 서울시장 지원 약속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와 진관사수륙재 보존회는 10월 13~14일 20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진관사 경내에서 '국행수륙재'를 설행했다.

진관사 수륙재는 조선시대 나라의 안녕과 국민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봉행된 행사를 계승한 것으로 낮재와 밤재 이부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진관사는 태조 6년인 1397년 59칸에 달

하는 수륙사(水陸社)가 건립된 국행수륙사찰로 태종 재위 18년 성녕대군을 위한 수륙재를 비롯해 성종의 수륙재 등 조선왕실의 재가 진행됐다.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수륙재는 무형, 유형의 가치를 후대에 전해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수륙재의 의미를 강조했다.

14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진관사를 찾아 수륙사지(水陸社址)를 둘러보고 수륙재에 참석해 지원을 약속했다.

박원순 시장은 "수륙사지를 살펴보고 수륙재에 동참해보니 오랫동안 간직해야 할 문화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삼화사수륙재, 문화재 신청 후 실시 진행 이와 함께 동해 삼화사(주지 원명)와 삼화사수륙재보존회는 10월 19~21일 삼화사 경내에서 국행수륙재를 설행했다.

이번 삼화사 국행수륙재에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신규등록지정을 위한 문화재청 조사위원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삼화사는 태조 4년인 1395년 고려 왕조에 대한 전도 및 사회통합을 위해 수륙도량으로 정해진 뒤 매년 봄, 가을에 수륙재가 설행됐다. 송유역불정적으로 단절된 삼화사 수륙재는 2005년 <전지명왕수륙재의 찬요>(1547년 덕주사 관)가 삼화사에서 발견되며 이에 기반해 매년 설행되고 있다.

이날 동해시 관계자는 "문화재 등재와 함께 떠나놓보시 등이 전개되는 축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화사수륙재보존회는 이에 앞선 18일 학술세미나도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원은 "일제가 법패를 금지한 이유는 법패가 단순히 불교의례에 그치지 않고 한민족 문화전통으로서 민족성을 발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수륙재에서 불교의례가 지닌 사회적 기능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탁효정 한국학연구원 전임연구원은 "태조는 고려 왕씨들을 추모하기 위해 삼척 삼화사와 남해 견암사, 개성 관음굴에서 수륙재를 치렀는데, 이 중 삼화사는 태조의 4대조인 목조를 비롯한 전주 이씨 일족이 원당으로 삼았던 곳"이라고 소개했다.

포교원, '수륙재 통한 포교활성화' 연찬회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지원)도 10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수륙재를 통한 포교활성화'를 주제로 포교연찬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연찬회에는 포교연구실장 범상 스님이 '수륙재를 통한 포교활성화'라는 주제로 기초발제를 하며 이성운 박사(동국대 강사)가 '포교활용을 위한 수륙재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삼화사 주지 원명 스님과 교육원 교수인 태경 스님이 토론할 예정이다. 또 윤소희 박사(동국대 강사)가 '수륙재를 통한 문화포교'를 주제로 발표하며 불찬법연소장 혜일 스님과 이윤석 연세대 교수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성찰과 반성 있는 깊은 믿음 필요”

월암 스님, 오강남 교수 '믿음'에 대한 대담



오강남 교수(좌)와 월암 스님이 믿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경 한산선원 선원장 월암 스님과 오강남 리자이나대 명예교수는 믿음에 대한 허심탄회한 생각을 나눴다.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가 10월 16일 조계사 나무결리에서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서다. 노덕현 기자

오강남 교수: 믿음에는 표층믿음과 심층믿음이 있습니다. 표층믿음에 머물면 믿음은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이 되고야 합니다.

표층믿음은 지금의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표층믿음에 속해 탐진치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아니라 본래 나의 불성,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성을 찾게 도와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성을 활용해 자신의 믿음에 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에 다시 확신을 갖고 이성마저 뛰어 넘어야 합니다.

월암 스님: 정법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불립문자를 주장하는 선불교의 입장에서 표층믿음, 또 심층 믿음 중 합리적인 믿음 부분은 극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선지식과 스승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합니다. 간화선을 예로 들면 화두참선 시 화두에 대해 의심하기에 앞서 이

의심으로부터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믿음이 전제돼야 합니다.

어떤 스승들은 이를 들어 깨닫는다는 말 대신 믿음을 증득한다고 표현합니다. 손을 들어 달을 가르키는데 사람들이 손가락만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문자와 기호로 종교를 접하더라도 어느 단계에 가면 그것마저 초월해야 합니다.

오강남 교수: 표층믿음에서 심층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이를 받지 않는 지도자와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예로 들면 4세기까지는 깨달음과 믿음을 모두 강조했습니다. <도마복음>에서 예수는 믿으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제국으로부터 공인 받으며 통치이데올로기화되며 깨달음을 강조하는 부분이 점차 사라집니다. 하층민, 하위계층에서 깨달음, 신과의 합일은 사회구조와 교회계층 자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월암 스님: 한국불교를 봐도 기복을 통해 세속의 이득을 취하려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방편법으로 8만 4천명이 설해졌지만 그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방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앞선 선지식들이 더 많이 이끌어 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마음을 열게하고 믿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수행불교로 나가야 합니다.

차인들 수행정신 선차 축제로 꽃피다

10월 18일 제7회 문화교류대회 서울서 개막...차 시연회 등 선별

세계 차인들의 선차 축제가 창설 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성대히 열렸다. 세계선차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최석환)는 10월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제7회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를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헌다와 대화사, 축사 등이 이어졌다.

최석환 대회장(차의세계 대표)은 "1000년 전 구산선문의 조사들로부터 이 땅에 선차장의 꽃을 피운 이래 차와 선의 기나긴 세월은 이어져 왔다"며 "선차를 꽃피운 한국땅에서 세계선차계의 원로와 불교계 인사들을 모시고 교류대회를 열게돼 기쁘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문화부장 진명 스님이 대독을 통해 "선차는 불교의 맥과 흐름을 함께 이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번 대회의 의미가 크다"고 치

사했다.

선차문화교류대회는 개막식 이후 학술대회와 두리차회, 교류대회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학술대회에서 상원사 용문선원장 의정 스님은 '고 청규를 통해 본 한국 선가의 차 생활' 기초발제를 통해 "선차라는 조사선이 남긴 귀중한 선문화이자 선종의 자산"이라며 "선이 21세기 문명의 대안사상으로 역할을 다하려면 삶 전체의 모든 분야에 실용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자사 대은 스님은 '무상선사와 대자선차' 발제를 통해 "신라 무상선사가 대자사에 선차를 전했으며 원오극근 선사로 전해져 '끼따'로 선차문화를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양산 통도사 주지 원명 스님의 '경봉정서의 다산일미론' 중국 구단 선생



두리차회에서 차를 시음하는 세계각국의 스님들. 이날 자리에는 시민 및 외국인 150명이 참석했다. 사진=박재환 기자

의 '태고보우와 석육청공은 통한다'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학술대회에 이어 오후4시부터 향경궁 앞 뜰에서는 두리차회가 펼쳐졌다. 이어 19일 서울 국립극원 예약당에서는 해동불교법음단의 바라춤, 고선다회의 무상선다도

등 4개국 15개 팀이 펼치는 선차문화교류공연이 진행돼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외 문화교류대회 참가자들은 10월 20~21일 경남 하동과 전남 보성을 순례하고, 21일 장흥 보림사에서 헌다 의식을 끝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노덕현 기자

“가사는 모든 중생 수행 이끄는 위의”

천태종 가사보존위 창립기념 학술대회 성료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종)은 10월 14일 서울 관문사에서 천태종 가사보존위원회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가사의 변천과 전승'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총무원장 대행 무원 스님은 "삼보의 상징인 가사는 삼보에 귀의한 모든 중생들의 신앙과 수행을 이끄는 위의를 담고 있다"며 "가사의 위신력과 청

정성 등을 알고 경외하는 자체가 이미 수행의 한 과정"이라고 베퍼를 내렸다.

이날 김경숙 조계종 의제실무연구회 연구원은 '한국 가사의 특징' 주제발표를 통해 "신라 시대 가사에는 점에 '옴' 자 등이 있고, 고려시대 가사는 수가사였던 '삼보의 상징인 가사는 삼보에 귀의한 모든 중생들의 신앙과 수행을 이끄는 위의를 담고 있다'며 "가사의 위신력과 청

노덕현 기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공인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543-6155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해운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교육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인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템플스테이도량

성지순례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골굴사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녹여주는 골굴사

◆ 주변선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충릉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11시,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총본산골굴사 제1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6-1689 www.sunmudo.com